

알차게... 뜨끈하게...
건강하게... 든든하게 채우는

겨울엔 뭐 먹지? 순천의 겨울味(미)학

국밥 · 찜통어탕 · 미나리 삼겹살 등 추천



◆순천의 대표 푸드 '국밥'
바야흐로 국밥의 계절이 돌아왔다. 국밥은 가장 한국적인 전통 패스트푸드이자 한국인의 소울 푸드이다. 북쪽에는 옷장이, 남쪽에는 아랫장이 있는 순천 5일장의 대표 음식 역시 국밥이다.

국밥이 나올 차레라고 생각하는 순간 살짝 데친 부추가 올라왔든 수육 한 접시가 떡 하니 배달된다. 국밥을 2인 이상 주문하면 나오는 옷장국밥골목만의 특급 서비스라니, 전라도 인심은 순천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다. 수육으로 든든하게 한 번, 국밥으로 뜨끈하게 두 번, 순천 옷장국밥이 당길 땐 꼭 친구나 연인, 가족과 함께 가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란다.

◆갯벌이 내어준 자연의 맛 '찜통어탕'
순천에는 '찜통어마을'이 있을 정

도로 예로부터 순천 사람들의 찜통어 사랑은 남달랐다.

갯벌이 조금만 오염돼도 살지 못하는 까다로운 찜통어는 해양오염의 지표가 되었고, 양식이 불가능해 100% 자연산으로만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찜통어탕이 나오면 일단 국물 맛에 집중해야 한다. 구수하면서 겉쪽하고, 시원하면서 칼칼한 찜통어탕 맛에 적서들 때쯤에 밥을 말기 시작한다. 찜통어탕이 입 안으로 점점 사라져가고, 푹배기 속 내용물이 줄어드는 게 아쉽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찜통어탕(왼쪽) 미나리 삼겹살.

면 당신은 찜통어탕의 맛에 제대로 빠진 것이다.

한겨울, 찜통어탕 맛에 진하게 입문했다면 다른 계절엔 찜통어 자체를 즐길 수 있는 찜통어 전골에 도전해 보시길 바란다.

◆상큼한 맛에 든든한 영양까지 '미나리 삼겹살'

흔히 미나리를 봄의 전령사라고 한다. 하지만 순천 미나리의 수확 시기는 11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 한 겨울에도 싱싱하게 자란 미나리를 맛볼 수 있다. 도사면과 별량면 200여

농가가 미나리를 손수 키우는 순천은 60여 년 전통의 미나리 산지이다. 순천의 청정 자연이 키운 미나리는 짭짤한 맛과 풍부한 섬유질로 전국 최고의 맛과 품질을 자랑한다.

미나리 삼겹살을 기본으로 미나리 생목살, 미나리 항정살에 미나리 육회비빔밥까지 알뜰하게 챙기시길 추천한다.

◆'나만 알고 싶은' 모두의 귀한 맛 '백반과 한정식'

사통팔달의 도시 순천은 예로부터 물자가 풍부한 고장이었다. 순천의 비옥한 땅과 넉넉한 바다에서 나는 식재료는 물론, 이웃한 주변 지역에서 나는 먹거리까지 역전시장, 아랫장시장, 옷장시장으로 총집합한 덕분에 사시사철 종합먹거리백화점을 방불케 했다.

덕분에 순천의 식당들은 제철 음식 내기가 쉬웠다. 제철에 나는 찬들로만 차려내고 그 자체로 '특별한' 한 상이 완성됐기 때문이다. 순천의 백반집들이 긴 세월 변함없이 한 자리를 지켜온 이유기도 하다.

/순천=조준익 기자

광양, 정부혁신 사례 '국내 최초상' 수상

사회적 약자 위치 찾기 'U-수호천사 서비스' 실시



광양시는 사회적 약자 위치 찾기 서비스인 'U-수호천사 서비스'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공모'에 선정돼 국내 최초사례로 인증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공모는 정부혁신 사례 중 최초로 도입한 사례와 최고로 잘 운영하는 사례를 적극 발굴하는 공모사업으로, 광양시 '사회적 약자 위치 찾기 서비스'가 최초 사례로 선정돼 '국내 최초상'을 수상했다.

'U-수호천사 서비스'는 2007년 광양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회적 약자 위치 찾기 서비스로 지적장애 및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위치추위 기능이 탑재된 단말기를 보급해 거주 지역(안심존)을 벗어날 경우 보호하는 서비스이다.

2009년부터는 지적장애 및 치매

노인뿐만 아니라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서비스 대상을 늘려 다양한 형태의 위치기반 서비스로 발전했다.

현재 광양시는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는 데 힘쓰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정부혁신 최초사례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살기 좋은 도시 광양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혁신 최초사례에는 ▲광양시가 선정된 'U-수호천사 서비스' 외에 ▲의교부 '점자어권 세계 최초 도입' ▲칠곡대병원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한국도로공사 '도로노면 색깔 유도선' 등 총 10건이 선정됐다.

/광양=조준익 기자

광양, 지역 문화유산 관련

인문학 강좌 내달 7일 개최

광양시는 오는 12월 7일 광양문화원에서 지역 문화유산에 관심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 문화유산 관련 인문학 강좌 '광양읍성의 역사와 복원'을 진행한다

읍성(邑城)은 조선시대 각 지역 대한 정치, 군사, 행정, 문화, 생활 풍속 등을 통합적으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역사문화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인문학 강좌는 시민들에게 읍성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다.

강의는 ▲'문헌을 통해 본 조선시대 광양읍성과 읍치시설의 변화'(이수진 동산대학교영산강원연구원 실장) ▲'광양읍성의 발굴자료와 의의'(조근우 마한문화연구원장) ▲'나주읍성권역 문화유산의 복원'(김종순 전 나주시청 문화예술과장) 등 3개 강좌로 구성됐다.

인문학 강좌는 광양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곡성 '내년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 전남 유일 선정

취약계층 학생 유제품 선택권 확대

곡성군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2024년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4년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 지역으로 전국에서 총 28개 지역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했으며,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곡성군이 선정됐다.

학교 우유급식 사업은 지난 40년간 문제로 제기됐던 취약계층 학생

들의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동시에 우유 소비 기반 형성을 통한 낙농산업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학생 수 감소, 우유 값 상승, 관내 납품이 가능한 우유업체 감소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학교 우유 급식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우유 급식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를 도

입했다. 곡성군은 우유 바우처 카드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무상 우유급식을 진행할 계획이 다.

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월 15,000원의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여 학생들이 기호에 맞는 유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 또 일반 백색우유 1가지에서, 발효유, 치즈류, 가공우유 등 학생들의 유제품 선택권을 확대했다.

/곡성=황상연 기자

구례, 부산 박람회서 '맞춤형 귀농·귀촌 정보' 홍보

구례군은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3회 부산 유기농·친환경·귀농귀촌 박람회'에 참가해 도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귀농귀촌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70여 개 지자체가 참가한 이번 박람회는 유기농·친환경 식품 전시 등 관련 산업 유통시장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국제 식품박람회, 차·공예 박람

회'와 동시에 진행되어 다양한 볼거리와 정보를 관람객에게 제공했다.

구례군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이 많은 도시민을 대상으로 구례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과 다양한 가공식품을 홍보했다.

또한, 농촌에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구례군에서 운영하는 '체류형 농업 창업 지원센터', '구례 정착 보

금자리' 등 특화된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구례군은 맞춤형 문자 서비스를 도시민에게 안내해 큰 호응을 얻었다.

김순호 군수는 "앞으로도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홍보하고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및 지원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오광범 기자

보성 '스마트 청사 안내시스템' 구축

터치 한 번으로 청사 안내 정보 '한눈에 쏙'

보성군은 지난 21일부터 청사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청사 배치도와 직원 배치도 및 담당업무를 알려주는 비대면 '스마트 청사 안내시스템'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민원인이 자주 왕래하는 청사 정문과 민원실 입구에 종합안내 키오스크(무인 안내기)를 설치해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인함으로써 담당 부서와 담당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종합안내 키오스크는 음성안내가 자동으로 재생돼 시각장애인도 음성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방문객은 화면 터치로 손쉽게 각 부서의 좌석 배치와 담당자 사진, 담당업무, 전화번호 등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각 부서 출입구에 종이로 운영하던 직원 배치도도 키오스크로 변경해 민원인이 업무 담당자를 쉽게 확인하게 하고 민원 업무를 효



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왔다.

부서별 키오스크는 조직개편이나 인사이동 후 종이 조직도를 교체·부착하는 번거로움 없이 간단하고 빠른 업데이트를 통해 정보를 현행화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군 관계자는 "청사 안내 시스템을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까지 확대해 방문객과 직원들 모두가 편리하고 효율적인 방식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방문객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성=장국도 기자

